

제일.서울은행의 민영화 추진방안

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503-9254

<> 주요 내용

- o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주식(지분율 : 정부 47%, 예금보험공사 47%)을 자금력과 경영능력 있는 건전한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두 은행을 조속히 민영화할 계획임.
- o 두 은행의 민영화는 IMF 및 IBRD와 협의한 일정('98.11.15까지)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입찰을 추진할 예정임.
 - 두 은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재무제표, 대출자산 등에 대한 자산실사를 위임
 -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주간사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과 관련된 필요 절차를 주관토록 위임
- o 정부는 두 은행의 민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
 - 재정경제부.금융구조조정기획단.예금보험공사.은행감독원.금융연구원 등 관련 기관으로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(위원장 : 재경부 기획관리실장)를 구성.운영기로 하였음.
- o 민영화 추진 필요성
 - 금융산업 구조조정 추진의지 표명 --> 대외신인도 회복
 - 상업적 차원의 부실금융기관 정리 --> 정부부담 경감
 - 선진금융기법 및 경영방식 도입 --> 금융산업 경쟁촉진
- o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보유주식의 매각당사자가 되어 민영화를 추진
- o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두 은행에 대한 자산실사를 위임
 - 자산실사 목적 : 매각협상을 위해서는 은행의 현 상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내부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.
--> 재무제표, 대출자산 등 현황자료를 공신력 있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
 - 계약방법 : 두 은행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회계법인과 계약(두 은행은 회계법인을 "C&L.삼일"로 선정하여 '98.3.31 계약을 체결하고 4.1부터 자산실사에 착수할 예정)
- o 주간사기관을 선정하여 매각과 관련된 필요절차를 주관토록 위임
 - 매각절차 : 은행 가치평가 --> 인수희망자 조사 --> 투자의향서 접수
--> 인수희망자의 은행실사 --> 입찰
 - 계약방법 :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주간사기관과 계약
- o 민영화절차 진행과정에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영화추진심의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.운영
- o 심의위원회 구성 : 민영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
 - 구성(9명)
 - . 재경부 기획관리실장(위원장).금융정책국장.국고국장
 - . 금융구조조정기획단장

- . 예금보험공사 전무
- . 은행감독원 부원장
- . 금융연구원 부원장
- . 제일은행.서울은행 전무
- * 제일.서울은행 주주구성(두 은행이 동일함)

(단위 : 억원, %)

	자본금(액면금액)	지분율
합계	16,000	100
정부	7,500	47
예금보험공사	7,500	47
일반주주	1,000	6

